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청년농 대상 농지은행 사업 캠페인 진행

입력: 2026.10.12 14:06 / 수정: 2026.10.12 14:06

2026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업인 10명에 사업 설명



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더팩트 | 전남광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026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개별 영농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영농 규모와 작목, 농지 확보 현황 등 각 농가의 상황을 바탕으로 농지 임대·매매 및 관련 농지은행 사업을 안내해 청년농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청년농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소통 인프라로 네이버 밴드를 안내하고 가입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농지은행 사업 관련 주요 정보와 사업 일정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청년농들이 영농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